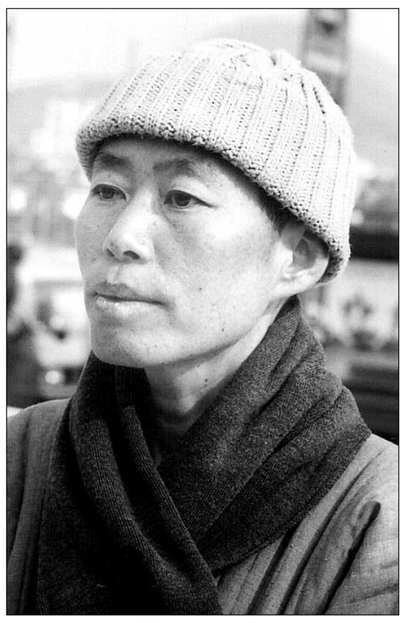
"노루귀 · 청매 등 천성산 새싹들아… 꽃 피우려는 너희 터전 꼭 지켜줄께"


◇내원사 산감 지율스님

● 지율스님이 띄운 편지 ●

간밤에 비가 살짝 내린 탓인지 나무 끝에 물이 올랐다. 달력을 보니 오늘이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는 우수다. 얼음 녹은 물이 흘러내리는 내원의 긴 계곡을 떠올려 본다. 지금쯤 천성계곡의 맑은 물가에 도롱뇽이 나와 헤엄쳐 다니고 물가의 버들가지에도 물이 올랐을 것이다. 내원사를 떠나올 때 봉오리가 맺혀있던 청매도 지금쯤 만발하여 스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겠지.

눈을 감고 봄물이 드는 내원 계곡을 그려본다. 언덕에 피기 시작하는 작은 노루귀와 얼레지, 그리고 제비꽃, 갓천골의 미나무군락, 현호색, 족두리풀 화엄의 언덕아래 대규모 군락으로 피어나는 눈방울꽃, 낙 엽속에 숨어 피는 제비꽃, 그리고 인적 드문 숲길에는 춘란이 촉을 틔웠겠다. 꼰꼰이 주걱도 뿌리를 내리고 있을 것이고. 꽁꽁 언 땅속에서 기적처럼 새싹을 틔우는 너희의 아름다움은 도심의 현란한 문화에 길들여있는 사람은 맛보기 힘든 자연이 주는 선물이고 축복이다.

너희가 겨우내 준비한 그 애틋한 생명을 꽃피우는 동안 우리 인간들은 너희들의 터전을 뚫고 지나는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공사가 강행되면 무시무시한 속력으로 너희 터전의 심장부를 뚫고 고속철이 지나가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너희들 모두는 지금 나처럼 목말라하고 배고파 하다가 말라서 죽고 말겠지.

오늘도 "살려달라" 간절히 기도하지만 대답없어 배고픔 · 추위보다 더 힘들어

어떻게 하면 너희를 지켜줄 수 있을까. 너희는 어떤 말을 사람들에게 하고 싶어하는지를 고민하며 부산시청 앞 광장에 천막을 치고 16일째 굶고 있다. 입술이 마르고 배고픔을 느끼며 편리만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이기심으로 너희들이 느낄 생명에 대한 위협과 공포를 좀 더 분명히 확인해 갈 뿐이다. 말 못하는 너희들을 대신해, 너희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나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싶은 간절한 기도를 담아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스님들과 신부님들, 수녀님들을 비롯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지키는 일에 힘을 모아주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의 마음이 부족함을 절감한다. 이대로 있다간 너희들의 생명이 무참히 쓰러질 것이라는 절박함으로 산을 떠나 길거리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너희를 지켜줄 어떤 약속도, 대답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식의 배고픔이나 노숙의 추위와 소음보다 더욱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다.

이곳에서 쓰러지는 일이 있더라도 너희와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또 한번의 약속을 스스로 다짐하며 하루 빨리 반가운 소식을 들고 너희들에게도 달려가고 싶다. 너희와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화엄벌에 가득한 봄기운을 온 몸으로 맞이하고 싶다. 2003년 2월19일 지율 합장

지율스님 단식기도 일지

▶14일 울산 관음암 대활스님 부산역~시청까지 1인 마라톤

▶15일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음악회 — (사)대불청 부산지구, 부산청년불자산악회

▶16일 작은 악기 고운 소리 오카리나 연주 내원정사 주지 정련스님, 범어사 전 주지 정관스님 방문

▶18일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 관통 백지화 공약 실현을 위한 미사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환경 기도법회- 통도사 사부대중

▶19일 자전거 시위 -부산시여성자전거협회 공약 실현을 위한 합창제 — 부산시불교연합합창단 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장 성타스님 방문

▶20일 통도사 소임 스님 릴레이 단식 동참 조계종 환경위원회지지 성명서 발표 울산 학성선원 조실 우룡스님 방문 박주미 부산시의원 단식 동참

▶21일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법장스님 방문

전통차례 '세시차회' 재현

헌공다례 · 접빈다례 두가지 선보여 차다리는 방법 등 일반 다례와 달라

신라시대부터 고려, 조선시대로 이어져 내려온 우리나라 고유의 세시차회(歲時茶會)가 울산에서 재현됐다.

무산스님(세계다담선류다도회 회주 · 경주시 월성동 해회선원 회주)의 진행으로 10일 울산 정광사(주지 도정)에서 열린 이날 세시차회는 다례의 의미와 절차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진행됐다. 박용섭씨(중요무형문화재 45호 대금산조 이수자)의 대금연주가 곁들여진 가운데 헌공다례와 손님을 맞는 접빈다례 2가지를 재현했다.

이날 선보인 세시차회의 접빈다례는 차를 다리는 방법에서 팽주의 태도 등 여러가지 면에서 일반적인 다례와는 크게 달랐다.

가장 큰 차이점은 막연한 덕담이나 담소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한해를 맞아 포부를 밝히고 결속을 다지는 자리라는 점이다.

무산스님은 "우리나라 고유의 세시차회 다례는 임금이나 신하, 백성들이 지난 한해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해의 결속을 다지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으로 마땅히 이어 나가야 할 전통"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경북문화재 예산 611억 사찰관련 전체 13% 81억

경상북도는 최근 전국 문화재예산 중 21%에 해당하는 국비 3백 52억원을 확보해 경상북도의 전체 문화재 보존관리 예산으로 모두 6백 11억원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중 사찰 문화재 관련 예산은 전체의 13%인 81억원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경상북도는 37억원을 들여 유물전시관 4곳을 건립하고, 19억원으로 상주시 상오리 7층석탑의 안전진단 실시, 경산시 환성사 돌일주문 복원에 2억5천만원, 군위군 인각사지 발굴조사에 1억4천만원, 은해사 거조암 발굴조사에 2억원의 예산을 각각 투입하는 등 대대적인 문화재 정비에 나선다.

이와함께 경상북도는 239억원으로 전통가옥 정비, 117억원을 들여 경주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매입을 실시, 천연기념물과 사적지 정비에 101억원, 서원과 향교 정비에 35억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통도사 박물관대 연구반 50명 수료식

문화해설 · 포교사로 활동

통도사박물관대학(학장 범하)은 14일 박물관문화센터에서 2003년도 수료식을 가졌다.

불교문화와 전통 문화 전반에 걸친 이론을 습득함으로써 문화해설사 및 불교포교사로서 자질을 갖추게 된 수료생들은 연구반과 4기생을 합쳐 50여명. 우수한 강사진의 이론 강의 뿐 아니라 실기와 정기적인 현장답사를 통하여 강단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실체험 강좌에 역점을 두고 있는 통도사 박물관대학은 수료식에 이어 5기 수강생을 모집중이다. 2월말까지 학예실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 메일을 통하여서도 가능하다.

한편 통도사박물관은 새해를 맞이하여 홈페이지(http://www.tongdosamuseum.or.kr)를 새 단장했다.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일문과 중문 홈페이지를 새로 추가해 불교문화와 대한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게 되었으며 성보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하여 연차적으로 간행되고 있는 '한국의 불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추가했다. 055)384-0010

천미희 기자

'우리문화재의 美' 사진전 대구 박물관, 26일부터

국립대구박물관은 사찰의 단청과 벽화, 불교 석조미술, 국보급 문화재, 전통건출 등을 소재로 한 '우리 문화재의 美' 사진전을 개최한다.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국립대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게 되는 이번 전시회는 현시대 대표 문화재전문 사진작가인 관조스님, 안장헌, 김대벽, 한석홍 4인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관조스님의 <여수 흥국사 대웅전 천장화>, 안장헌씨의 <경주 남산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 김대벽씨의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한석홍씨의 <금동미륵반가사유상> 등 34점이 출품돼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과 멋을 음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구 기자

김해지역에 불교교육바람

반야불교대학 · 근본불교학교 개설 … 내달 개강

김해지역에 불교교육 바람이 불고 있다.

신어산 반야암(주지 은하)이 '반야불교대학'을 다보선원(지도법사 빅쿠 분하파라)이 근본불교학교를 개설한다.

3월 4일 개강하는 반야불교대학은 4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며, 사찰예법, 부처님의 생애, 기초교리, 수행법, 경전강독 등의 과목이 개설된다. 수업은 매주 화,목요일 저녁 8~9시30분 실시되며 강사는 반야암 주지 은하스님이다. 문의: (055)337-0108, 0180

다보선원 근본불교학교(교장 송동희)는 3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위파사나 수행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강좌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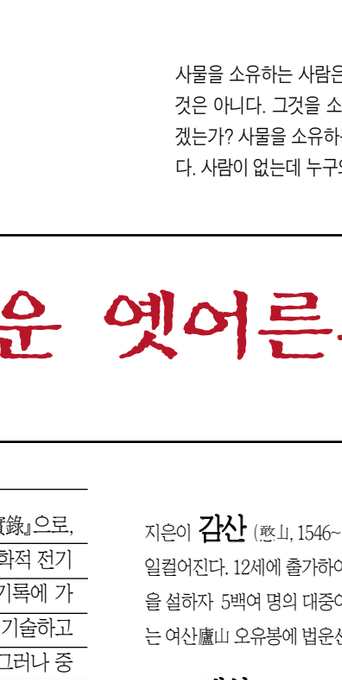
매주 금 · 토요일에 열리는 이번 근본불교학교에서는 위파사나의 이론과 실습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의 기본 구조를 익히는 한편 불교의 사유체계, 철학적 관점에 대한 교습도 진행된다.

또한 부처님의 생애, 불교예절, 불교 발생의 사회적 배경과 한국과 인도 불교사에 대한 강의를 비롯해 초기 불교 경전인 아함경에 대한 특강도 마련된다. 문의 (055)331-6118.

김원우 · 천미희 기자

한중일 무차선대회 실황 비디오 · CD로 제작

지난해 10월 20일 동양 정신세계의 근간을 이룬 국제적인 무차선회로 관심을 모았던 해운정사 국제무차선법회 실황중계 비디오와 CD가 제작됐다. 해운정사는 1만여 불자가 운집했던 무차선법회를 다시 돌아보고, 특히 이목을 집중했던 선사들의 법거량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비디오와 CD를 제작, 보급한다. 비디오에는 서옹 스님의 법문, 진제 스님의 법문 및 법거량이 90분 분량으로 담겨 있다. 문의: (051)746-4812 천미희 기자



◇국제 무차선대회 비디오 테잎

경북 군위 공무원불자회 잇달아 출범

군청 · 경찰서불자회 창립법회

경북 군위군에 두 개의 공무원 불자단체가 잇따라 창립해 지역불교 활성화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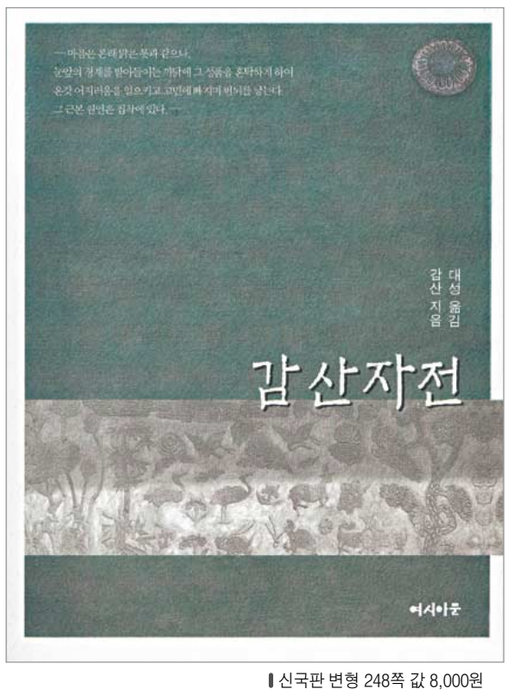
군위군청 불자 공무원 30여명은 18일 지보사(주지 행훈)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정송자(군위보건소 예방의약계장)회장을 추대했다.

이어 19일에는 군위 경찰불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위경찰서 불자회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창립식에서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처님이나 보살이라 생각하고 정성껏 대하면 불자회 또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법문했다.

박원구 기자

감산대사 수행일대기 한국 초역



▌신국판 변형 248쪽 값 8,000원

사물을 소유하는 사람은 도(道)를 말할 수 없다. 대저 만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소유하지 않으면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사물을 소유하는 자는 반드시 사물을 추구한다. 사물을 추구하는 자는 사람을 잊기 쉽다. 사람이 없는데 누구와 더불어 도를 말하겠는가? 사물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마땅히 가야 할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옛어른의 공부 길…
하지만 가지 못하고 있는

– 이자전自傳의 원제는 『감산노인자서연보실록憨山老人自序年譜實錄』으로, 감산스님이 자신의 평생사平生事를 기술한 일종의 자서전이지만, 문학적 전기傳記라기보다는 년年 단위로 주요사건을 기록한 개인적인 행적의 기록에 가깝다. 때문에 매우 간략하게, 주로 저자 자신의 직접 체험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없는 대목이 많다. 그러나 중요한 시기의 이야기들은 주변 인물들과의 구체적인 대화나 사건 전개를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당시의 정황을 생동감 있게 전해 주고 있다.
특히 젊은 시절 깨달음을 열어 가는 이야기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

지은이 감산 (憨山, 1546~1623)스님은 운서 주굉, 자백 진가, 우익 지욱과 더불어 명대의 4대 고승으로 일컬어진다. 12세에 출가하여 19세에 구족계를 받았다. 1581년에 오대산에서 무차회 無遮會를 열어 법을 설하자 5백여 명의 대중이 모였다. 1597년에는 조계曹溪에 머물면서 선禪을 부흥시켰다. 1616년에는 여산廬山 오유봉에 법운선사法雲禪寺를 건립했고, 1622년에 조계로 돌아와 다음 해에 입적했다.

옮긴이 대성 (大晟)스님은 1989년 순천 송광사로 출가했다.
『참선요지』와『방편개시』(여시아문)를 우리말로 옮겼으며 최근에는 라마나 마하르쉬관련서적들을 '아루나찰라 총서'(탐구사)라는 이름으로 번역하고 있다.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02-732-1521 / Fax 02-737-0696